孤山詩歌에 나타난 '물(水)'의 心象小考

김 지 연*

目 次

Ⅰ. 序 言
Ⅱ. 孤山이 섰던 자리
Ⅲ. 孤山詩歌에 나타난 물(水)의 心象
1. 儒敎倫理
2. 戀君·思親의 媒介物
3. 否定的 現實 認識
4. 否定的 現實 認識의 超克
(1) 理想鄕으로서의 自然
(2) 風流
(3) 漁父生活의 現場感
Ⅳ. 結 言

Ⅰ. 序 言

朝鮮朝 士大夫들은, 出仕 流配 致仕의 과정을 거치면서 政界에서 물러나 현실에의 좌절감을 달래며, 자연에 몰입·회피하는 심정을 自然物에 기대어 江湖歌道의 詩歌文學을 형성해 왔다.

우리 詩歌作品 속에 일찍부터 自然은 소재로 등장하였으나 여기에서의 自

* 학생회원 4학년

然은 소재로 그쳤을 뿐, 深化된 自然이라든가 意味單位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곧, 자연 자체의 위대성, 숭고성, 혹은 아름다움을 발견 내지 경탄하고 거기에 자신을 合一시켜 노래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소재인 동시에 題材를 꾸미는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고려를 거쳐 조선조로 내려 오면서 自然의 다양한 가치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自然은 詩歌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1]

孤山의 詩歌文學의 特徵은 다방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처럼 다각적 검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詩歌作品의 內容을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과의 하나됨이다.

사실, 孤山詩歌에서의 自然은 이 나라 詩文學史를 通時的으로 조감해 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이해의 폭이며, 觀이며, 의미 부여는 남다른 데가 있다. 그는 自然에서 참된 自我世界의 구축, 즉 껍데기 삶을 팽개치고 자아를 성찰하고 실현하는 삶의 광장으로 받아 들여, 자연을 자신의 본연의 삶을 되찾는 實現의 마당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삶의 바탕은 그대로 詩歌作品에 반영되어 그에게 맑은 詩世界를 구축하게 한 셈이다.[2]

孤山은 仁祖·顯宗間 긴 유배 생활을 하였고, 外亂과 黨爭으로 흉흉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우리 나라 文學史上 短歌의 제일인자로 일컬어 진다. 이에 따라 그의 작품은 자연히 상징성이 농후하게 自然物에 의탁되어 드러나게 된다. 本稿에서는 孤山의 國文詩歌 75수 가운데 主要作品 素材이면서 그가 깊이 精神的 뿌리를 내리고 또한 隱遁生活의 背景이 되기도 했던 물(水)의 心象을 살펴 그의 시가에 흐르고 있는 脈을 짚어 보아 그의 詩歌를 이해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1) 文永千, 詩歌文學에 投影된 自然, 韓國文學硏究 제3집. 同大 한국문학연구소 1980.

(2) 文永千, 尹善道論, 時調學硏究叢書1, 한국 시조 학회 日出출판사 1986.

이미 尹孤山의 文學素材를 다룬 논문들이 많이 있으나 그 대부분이 총체적인 自然의 의미로써 논의되고 그치는데 대해 특히, 그의 流配生活과 밀착되어 있는 소재인 물(水)의 심상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더불어 孤山의 作品에서 그의 自然觀은 대상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대상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하여 '물'이라는 素材에 투영된 孤山의 개인적 상황과 그 심리 세계를 미흡하나마 조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漁父四時詞를 따로 구별하여 연구한 논문들이 더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本稿는 그의 국문시가 75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작품의 형식적 특이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Ⅱ. 孤山이 섰던 자리

孤山은 정치적으로 열세에 있던 남인의 가문에서 성장하여, 득세한 서인 중심의 사류를 타도하고 왕권 강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허무하게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 流配와 逃避가 그의 생활에 걸친 주된 양상을 이루었다. 그의 작품은 모두 관직에서 벗어나 있을 때 창작되는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孤山은 光海君 때 젊은 유학자적인 혈기로서 당시의 政局을 농단하던 李爾瞻 등의 죄상을 규탄하는 丙辰疏를 올렸으나, 도리어 이이첨 일당의 모함으로 慶源과 機張에 8년 간 유배를 당하여 仁祖反正 이후에야 비로소 放免되었다. 그러나, 세도가 드높던 李爾瞻을 감히 규탄하다가 유배를 겪고 돌아온 孤山을 맞이하는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였다. 그뿐 아니라, 柳希奮의 使嗾를 받고 丙辰疏를 올렸다는 모함까지 입게 된 그는 宦界에 뜻을 잃고 향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것은 실로 黨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自然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仁祖 6年에 孤山은 鳳林(孝宗) 麟坪 兩大君의 師傅에 拜除되어 이로부터 7년간 戶曹佐郎, 工曹正郎, 漢城庶尹, 世子侍講, 星州縣監 등의 본격적 仕宦生活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재상 姜碩基의 미움을 받아 星州縣監으로 左遷된다. 孤山은 도임하자 바로 그 직을 사임코자 하였지만, 마침 量田이 실시되었으므로 뜻을 미루었다. 그 量田은 매우 불공평하여 民心이 어수선하였기 때문에 그는 疏를 올려 公平한 量田이 民心을 규합케 하고 나라를 보전케 하는 大計임을 밝혔다. 그러나 監司는 그 疏를 올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不悅之徒의 浮誘을 덧붙여 狀啓하였다. 이 狀啓로 말미암아 臺論이 떠들썩하게 끓어 올랐고, 이에 孤山은 內外로부터 挾攻을 당하게 됨에따라 歸鄕하여 杜門自守하였다. 이 사건은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星州縣監에서 罷黜된 이듬해에 丙子胡亂이 일어났다. 그로하여 孤山은 서슴없이 甫吉島의 自然에 들고 말았다. 이는 치욕적인 굴복에 대한 悲憤을 참지 못한 데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동기는 될지언정 결정적인 동기는 되지 못한다. 그 결정적 동기는 바로, 궁지에 몰린 마음이 결심한 一丘一壑의 뜻이라고 본다.

亂이 일어나자 仁祖는 南漢山城으로 가고 嬪宮과 元絲大君은 江華島로 피하였다. 鄕里 海南에 있던 孤山은 이 소식을 듣고 江都로 배를 몰았으나 도착했을 때 이미 江都는 함락되었으며 또한 大駕가 영남으로 蒙塵하였다는 소문을 접하고서 배를 돌렸다가 해남에 와서야 비로소 치욕의 비보를 듣게 된다. 孤山은 그 길로 耽羅에서 일생을 마치려 결심하고 耽羅로 향하는 도중에 甫吉島를 만나게 되어 그 곳에 들어가 芙蓉洞이라 명명하여 山水를 즐겼고 또한 聞簫 金鎭의 兩洞을 얻어 함께 閑適하였다.

궁지에 몰린 마음으로 돌파구를 찾아 몸부림하다가 丙子胡亂을 계기로 甫吉島의 自然에 들기는 하였으나 그 자연 속에서의 생활마저 순탄하지는 않았다. 보길도에 든 이듬해 봄에는 胡亂時 不奔問한 것이 죄가 되어 1년간

유배당하였다. 그가 甫吉島에 든 것은 궁지에 몰린 마음을 自然 속에서 풀고자 하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一丘一壑의 뜻이거니와 그러한 뜻은 東西南北 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찾아낸 마지막의 길이다. 그러나 現實은 그에게 마지막의 길마저 끝내 냉혹하였다.

甫吉島에 들고서 孤山은 '三公을 불리소냐 萬事를 생각하랴'라고 無心을 표방하였다. 이것은 一丘一壑을 뜻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과연 그는 三公과 萬事를 저버리고 經國濟民의 理念에서 완전히 물러났는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孤山은 움직일 적마다 煩言과 積謗을 받게 되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政局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처럼 煩言과 積謗을 무릅쓰면서까지 政局에 뛰어 든 것은 士大夫의 이념 때문이었다. 그는 전형적인 士大夫인 동시에 전형적인 儒學者였던 것이다.[3]

Ⅲ. 孤山詩歌에 나타난 물(水)의 心象

1. 儒敎倫理

孤山은 전 생애를 통하여 시종일관 儒學者로서 생활하였으며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여러 작품에 직접·간접적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50代에 이르러서는 金鎖洞에서 五友歌를 지었는데 그는 이 五友歌의 序에서 자신과 더불어 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다섯 가지 벗을 소개하였으며 그 하나하나에 儒敎的 倫理를 부여하여 읊고 있다.

(3) 崔珍源 〈漁父四時詞와 假漁翁〉, 成大論文集 1960.

내 버디 몃치나 ᄒᆞ니 水石과 松竹이라
동산의 돌 오르니 긔 더옥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숫밧긔 또 더ᄒᆞ야 머엇ᄒᆞ리
〈山中新曲 五友歌1〉

그는 水·石·松·竹·月을 다섯 가지 벗으로 규정하고 그 자연의 각각의 장점과 특성을 유학자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취하여 노래하였다. 즉 청결하고도 그치지 않고 흐르는 물과, 不變하고 항상성을 가진 바위, 그리고 눈서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푸른 소나무의 의연성과 강직성, 나무도 풀도 아닌 중용성을 지녔으면서 사시에 푸른 대나무의 강직성, 항상성을 벗한다고 하였으며, 달에서는 만물을 다 비추어 군자의 덕을 온 세계에 베푸는 겸연성과, 말을 삼가고 행동으로 그 뜻을 보이는 침묵성을 강조하여 유학자적인 삶의 본보기로 삼았다.[4] 그 가운데 물(水)을 노래한 五友歌의 둘째 수는 다음과 같다.

구룸 빗치 조타ᄒᆞ나 검기를 ᄌᆞ로 ᄒᆞᆫ다
ᄇᆞ람 소ᄅᆡ 묽다ᄒᆞ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츨 뉘 업기는 믈 뿐인가 ᄒᆞ노라
〈山中新曲 五友歌2〉

물을 노래하면서 그는 청결성과 항상성을 강조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구름 빛은 청결성을 가졌으나 혼탁한 성질이 있고 바람 소리 또한 청결성이 있으나 일시적인 성질이 있으므로 청결성과 항상성을 동시에 가진 대상으로서 물을 벗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물'의 그러한 두 가지 성질을 벗삼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처럼 청결하고 항상성을 가진 유학자로서의 윤리를 지니고자 하는 바램과 신념을 다섯 가지 벗 중에서도 특히 '물'에 의탁하여 그려냈다고 볼 수

(4) 윤성근, 윤선도 작품집, 형설출판사, 1982. p. 23.

있는데 이런 그의 윤리관은 漁父四時詞 冬 1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구룸 거든 후의 힌빗치 두텁거다
天地 閉塞호되 바다흔 依舊호다
ᄀᆞ업슨 믉결이 깁편 ᄃᆞᆺ ᄒᆞ여 잇다
〈漁父四時詞 冬1〉

강직한 성격의 孤山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병자호란과 당쟁이 중첩하는 때에 芙蓉洞에 내려 간 그는, 온 천지에 눈으로 덮여 천지가 폐색하여도 끝내 제 모습을 잃지 않는 바다를 보며, 의연한 자신의 절개를 실어 노래하였다.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天地閉塞'이란 구체적으로 당시의 험한 현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文永午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그는 不變하는 자연의 攝理와 性情을 憧憬한 까닭에 수다한 自然物 속에서 배우고 또 배웠던 것이다. 더우기 그가 고민과 좌절의 수렁에 빠져 허덕일 때, 다툴 이 없는 江山은 은연 孤山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을 것이다. 天一方에 望美人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애끊어 지는 상황에서 이런 절실한 가르침은 人間으로 부터는 도저히 얻어질 수 없었다. 至高至善의 경지인 自然이 있을 따름이다. 불변하는 자연의 섭리와 성정을 生의 哲學으로 希求하는 그였기에 의구한 바다가 呼訴力을 지닌다.
>
> 이는 孤山에게 의연하고 不動하는 자세확립을 절실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언제 보아도 한결같이 푸른 바다는 孤山에게 蕩滌鄙吝의 媒介物이 되었을 것이고 그 한결같음은 孤山이 自然에 기댔던 教訓의 全部였을 것이다.[5]

孤山의 유교 윤리성을 담은 시가들은 그 외에도 다수의 작품이 있으며, 初筵曲 2수와 罷宴曲 2수에서는 그의 윤리성이 보다 분명해 진다. 여기에서는 성군으로 보필하는 신하의 도리와 덕례를, 大匠의 노력과 酒道에 비추어

(5) 註(1)의 論文.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윤리로서 절제의 미를 추구하는 그의 일면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유교 윤리들은 그의 전생애를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한 신념으로써 孤山의 시가 전체의 근간을 형성하는 실천 윤리로서의 대원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戀君·思親의 媒介物

孤山은 儒學者的인 패기와 젊음으로, 당대의 거두인 이이첨 등을 탄핵하는 내용의 丙辰疏를 올렸다가 도리어 경원으로 流配되었다.

초기 작품인 '遺懷謠' '兩後謠'는 경원 배소에서 지은 작품으로써 좌절된 현실의 부조화 속에서 戀君·思親의 情을 인간적인 끈끈한 감성으로 노래하였다.

楸城 鐵胡壕 밧긔 우러네는 뎌 시내야
므슴 호리라 晝夜의 흐르는다
님 向ᄒᆞᆫ 내 뜯을 조차 그칠 뉘를 모로노다
〈遺懷謠 3〉

추성 진호루는, 유배지 경원성의 남문루를 가리키며, 그치지 않고 밤낮을 흐르는 시냇물에 임 향한 자신의 심정을 비추어 孤山은, 울며 흐른다고 표백하고 있다.

丙辰疏로 하여 유배당한 몸이지만 유학자의 도리를 다하였음에 그에겐 후회가 있을 리 없었다. 단지,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끊임없는 충성심을 추성 진호루 밖의 시냇물에 의탁하여 그려냈다. 병진소를 올린 결과 경원으로 유배당하였으니 일견, 자신의 행위를 망녕되다고 하면서도 유배된 처지를 수긍하고 또한 자신의 거사가 오직 임금을 위한 일이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그의 심정을 〈遺懷謠 2〉에서 읽을 수 있으

며, 〈遺懷謠 3〉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그린 것과는 달리 〈遺懷謠 4〉에서는 山과 江이라는 단절된 거리감을 통해 애끓는 思親의 情을 그려냈다. 이 작품에 있어서 山과 江의 이미지는 단절된 거리감을 나타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그리는 절절한 심정을 도출해 내는 수단으로 승화된다고 볼 수 있다.

뫼흔 길고길고 믈은 멀고멀고
어버이 그린 뜯은 만코만코 하고하고
어듸셔 외기러기는 울고울고 가ᄂᆞ니

〈遺懷謠 4〉

여기에서 홀로 날아가는 기러기가 정녕 경원배소의 孤山을 의미한다고 볼 때, 날아가는 새에 비유하여 자신의 現身이 그처럼 훨훨 산과 강을 날아 그리운 부모님께 가고 싶은 마음을 대신하여 날려 보냄으로써, 절절한 情을 삭이고 있다 할 것이다.

병진소를 올리면서 그는 이미 결과를 각오하고 있었으므로 병진소의 말미에, 비록 자신에게 중한 벌이 내려지더라도 늙은 부친께는 화가 미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글을 간곡히 적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끝내 병진소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유배지에서 孤山이 思親의 정을 읊은 시는 곳곳에 드러난다.

清和時節雪猶殘 화창한 봄인데도 눈은 아직 남아
誰信人間有此寒 인간세상 그 뉘라서 이 추위를 믿을 건가.
欖苣蕙壤皆所善 만져 보는 난 잎새 좋기만 한데
囚山蔡服亦云安 귀양살이 복장 또한 편키도 하다
只緣愛國輕身易 나라 위해 이몸이야 가벼이 여기기 쉬워도

終爲思親忍淚難　어버이 생각에 끝내 눈물 참기 어려워
渺渺飛鴻斜日外　아득히 석양 끝을 나는 기러기
鐵胡樓上倚欄干　진호루에 올라서 난간 기댄다
〈次樂忘韻二首〉[6]

병진소의 결과 자신이 유배를 당하고 그의 부친 또한 여기에 연좌되어 파직되리라는 예상을 한 그는 忠과 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孤山은 이러한 심정을 〈睡覺思親〉에 '忠孝兩全難'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다. 유교 도덕은 이러한 경우 孝를 버리고 忠을 택하라고 한다. 儒學者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결국 병진소를 올렸지만 그 결과 자신이 유배를 당하고 부모께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 유학자가 아닌,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의 안부를 걱정하고 자신의 不孝를 탓하는 孤山의 인간적인 끈끈한 情을 느낄 수 있다.

그는 孝의 무게를 忠의 무게 여하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에게 있어서 孝란 忠의 무게에 비례하였으며 그런 신념을 실천하여 신념에 찬 도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신념에 찬 도전이었을지라도 회의는 따르게 마련이었다. 그것은 그의 인간적인 감성과 그 좌절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병진소를 올린 것은 不孝가 아니라 오히려 孝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3. 否定的 現實認識

孤山이 병진소로 하여 경원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지어진 〈雨後謠〉에서 그는 이 시의 제작 동기를 서문에서, 당시의 재상이 개과천선했다는 말을 듣고 마침, 오랜 비가 그친데 비유하여 이를 우리 말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밝혔다.[7]

(6) 〈孤山 遺高 卷一. 16〉
(7) 註(4)의 책, p. 46.

구즌 비 개단 말가 흐리던 구룸 걷단 말가
압 내희 기픈 소히 다 묽앗다 ᄒᆞᄂᆞᆫ다
진실로 묽디옳 묽아시면 갇긴 시서 오리라

〈雨後謠〉

제작 서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궂은 비 흐리던 구름은 당시의 혼탁한 世態를 諷刺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이렇게 혼탁한 풍조가 사라지면 자신도 그 세상에 적응해 살 수 있으리란 바램을 담고 있다 할 것이다.

믉결이 흐리거든 발을 싯다 엇더ᄒᆞ리
吳江의 가쟈ᄒᆞ니 千年怒濤 슬플로다
楚江의 가쟈ᄒᆞ니 魚腹忠魂 날글세라

〈漁父四時詞 夏4〉

이 작품 역시, 흐린 물결이란 당시의 세태를 풍자한 말이다. 세상의 풍조가 더러우면 더럽다고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물이 흐리면 발이나 씻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흐린 물에 갓끈을 씻지 못한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충신의 곧은 절개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伍子胥의 분노가 서려 있는 吳江으로 갈 수 없고, 屈源의 충혼이 楚江의 고기 배(魚腹)에 들어 있으니 그것을 낚을 수 없다는 것이다.[8] 비록 自然에 들어 있지만 윤선도는 이러한 충성스런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月出山이 놉더니마는 의운 거시 안개로다
天王第一峯을 一時에 ᄀᆞ리와다
두어라 히 퍼딘 휘면 안개 아니 거드랴

〈山中新曲 朝霧謠〉

월출산 천왕봉은 윤선도 자신을 가리키며 천왕봉을 가리는 안개란, 주관적으로 흔히 奸臣이라고 정의되는 사람들이라고 윤성근 교수는 설명하고[9]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용문 교수의 견해를 수용하고자 한다.[10] 그에 의하면 천왕제일봉은 임금에 비유하고 안개는 간신들에 비유하며 그 당시 조정을 둘러싸고 임금의 뜻을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의 횡포를 풍자한 것이라고 본다. 더구나, '미운 것이 안개'라고 노골적으로 적의를 표명한 것은 일종의 불의에 대한 저항 의식이며 야유와 조소의 의미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천왕제일봉을 윤선도 자신이라 하고, 안개를 간신이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천왕제일봉에 대한 해석이다. 천왕제일봉을 윤선도 자신이라 한다면 월출산도 윤선도 자신이라 하거나,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봐야 할 것이다. 천왕제일봉은 바로 월출산의 제일봉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천왕제일봉을 윤선도 자신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자처한 윤선도의 인격이 의심스럽게 된다. 그는 자만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안개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천왕제일봉'임이 틀림 없다면 간신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도 '임금'이 되어야지 어찌 윤선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천왕제일봉'을 윤선도 자신이라 보면 '안개'를 간신이라 보는 데에 상호 모순이 생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리라 본다. 그 다음은 시점의 문제이다. 이 작품에서 시의 화자는 어디까지나 멀리 떨어져 월출산을 바라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희망적 견해를 드러내 놓고 있다.

한편 文永午 교수는 이 작품에 대해 위와 같은 풍자적 의미로 볼 것이 아

---

(8) 註(4)의 책, p. 62.
(9) 註(4)의 책, p. 16.
(10) 원용문, 尹善道 시조의 문학적 의미, 경상대 배달말학회 학회지 제10집, 1985.

니라, 자연 그대로의 敍景詩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11] 그렇게 함으로써 終章에서의 여유로움이 한결 값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自然의 뜻에 맡기고 삶을 영위한 孤山의 自然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에서다. 하지만 서경시는 객관적 서술법에 따라야 하고 자연 경치를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한다고 볼 때 초장의 '미운것이 안개로다'는 주관적인 감정의 표출이라 하겠고, 종장의 '두어라 해 퍼진 뒤면 안개 아니 걷으랴'라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희망이 강렬하게 드러난 귀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작가의 주관적 감정과 사고 등이 확실히 드러난 작품을 서경시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否定的 現實認識에서 비롯된 세태풍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불운이 오래지 않으리라는 希求와 함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을 하는 내용의 작품들도 찾아 볼 수 있다.

비 오ᄂᆞᆫᄃᆡ 들희 가라 사립 닷고 쇼 머겨라
마히 ᄆᆡ양이라 잠기 연장 다ᄉᆞ려라
쉬다가 개ᄂᆞᆫ 날 보아 ᄉᆞ래 긴 밧 가라라
〈山中新曲 夏雨謠〉

이 작품에 대한 文永午 교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12] 비가 와서 작업할 수 없는 '들'은 생산자의 '들'이 아니라 자기의 경륜을 펼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을 의미한다.

---

(11) 文永千, 孤山 詩歌의 特徵, 同德語文論集 제5집, 동덕여자대학 국어국문학회, 1987.

(12) 註(10)의 논문.

이 작품은 보다 높은 상징성을 구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孤山은 이 작품에서 '장기'나 '연장' 내지 '마히'와 '사래 긴 밭' 등의 농경생활의 언어들을 상징적 수법으로 활용해서 적절하게 시어화함으로써 서민성적인 친근감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詩境의 범주를 농경문화에 국한시키는 듯 하지만 정작 노래하고자 하는 세계는 대극적 차원인 것이다.[10]

그믈 낙시 니저 두고 빗전을 두드린다.
압개를 건너고쟈 몇 번이나 혜여본고
無端흔 된 ᄇᆞ람이 힘혀 아니 부러 올까
〈漁父四時詞 冬5〉

漁父四時詞는 부용동에서 老年에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을 단순한 '어부가'라고 감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 그를 괴롭혀 왔던 정치적 풍파가 얼마나 거센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孤山은 憂國忠君之士가 되기 위하여 여러 번 임금 곁으로 가기를 시도했었고 그때마다 그를 배척하는 무리들에게 질시와 모함을 받아 뜻을 펼쳐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한 어부로서 무단한 된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나, 한 정치인으로서 무서운 당쟁이나 사화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작품은 정치인으로서의 항로를 어부 생활의 항로에 빗대어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 개울 건너편에 있다고 생각되는 '어장'은 憂國忠君之士로서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벼슬살이'를 뜻한다하겠고 '된바람'은 그의 뜻을 좌절시키는 온갖 정치적 풍파를 상징해 주는 말로 이해된다.[13]

(13) 註(9)의 논문.

4. 否定的 現實認識의 超克

(1) 理想鄕으로서의 自然

孤山의 이와같은 부정적인 현실 인식은 自然에의 歸依로 극복된다.

취ᄒᆞ야 누엇다가 여흘 아래 ᄂᆞ리려다
落紅이 흘러 오니 桃源이 갓갑도다
人世紅塵이 언메나 ᄀᆞ렷ᄂᆞ니

〈漁父四時詞 春8〉

芙蓉洞에서의 생활을 그는 도잠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이상향인 武陵桃源에 비유하고 있다.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로 떠내려 갈 지도 모를 지경으로 자연을 즐기면서 그는 흘러오는 落紅을 보며 자신이 바로 도화원기의 무릉도원에 닿아 있다고 노래한다. 즉, 자신이 있는 그 곳은 現實世界가 아니라 理想鄕이라는 뜻이다. 자신은 도연명이 되고 자신이 있는 곳은 別天地가 되어 그의 도피생활을 신선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孤山은 自然을 인간 세상과 자아를 격리시켜 주는 안식처라고 생각했다. '인세홍진이 얼마나 가렸느냐'라는 종장에서 俗世와 물(水) 위에 생활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분리해 냈던, 보다 분명한 그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웃 우희 서리오더 치운 줄을 모를로다
釣般이 좁다ᄒᆞ나 浮世와 얻더ᄒᆞ니
ᄂᆡ일도 이리하고 모뢰도 이리ᄒᆞ자

〈漁父四時詞 秋9〉

노년을 부용동에서 어부로서 소일하는 그에게 그치지 않고 모함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에 대해 윤성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4] 고깃배가

(14) 註(4)의 책, p. 84.

좁다고 하지만 俗世의 그 헐뜯는 풍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다. 비록 좁고 보잘 것 없는 배이지만, 비난과 모함이 없는 것이기에 화려한 정치적 생활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孤山은 이러한 생활에 만족하여 영속적으로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믉ᄀᆞ의 외로온 솔 혼자 어이 ᄉᆞᆨᄉᆞᆨ ᄒᆞ고
머흔 구룸 恨티 마라 世上을 ᄀᆞ리온다
波浪聲을 厭티 마라 塵喧을 막ᄂᆞᆫ도다
〈漁父四時詞 冬8〉

政界를 떠나 은둔하는 그에게 自然은 도피처가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물가의 외로운 솔을 윤선도 자신이라 볼 때, 씩씩하다고 표현하여 오히려 은둔 생활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외로운 솔이 서 있는 물가의 세계는 혼탁한 세상의 소리가 가려진 이상향의 세계를 가리키며 따라서 '波浪聲'과 '머흔 구룸'은 어부의 배안으로 끊임없이 날아오는 모함의 소리, 또한 그처럼 비방을 일삼는 속세의 풍조를 차단해 내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가 官界에서 물러 勢窮力盡한 한 마리의 새가 되었을 때 그를 포근히 안아 주는 곳이 자연이었다면, 그때의 自然은 그에게 현실 고뇌 치유의 틀림없는 병원이요 華陀였다.[15] 그러므로 孤山이 지닌 자연에의 전폭적인 희열과 존엄의 경지는 그가 도취와 無我의 세계에서 자연의 품에 안김으로 해서 이상향의 추구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眞實로 이어졌던 것이다. 결국, 孤山은 자연과 자신의 완연한 일치 또는 合一의 경지를 이룩하면서 인간과 자연을 무분별의 경계에까지 끌고 가 밀도 높은 경지의 진실을 表現해냄으로써

(15) 註(2)의 책.

自己救濟를 꾀했다고 본다.

(2) 風 流

孤山은 風樂을 즐기는 풍류객이었다. 樂을 위해 생활하고 官界를 떠나 隱退하여서는 자연 속에 몰입해서 순수한 田園詩人으로서 그의 생활에 바탕을 이루었던 것이다.[16]

孤山의 漁父四時詞는 병자호란 이후 부용동에 은거하던 중, 효종이 등극하여 비교적 안정된 심정에서 지어졌는데, 어부사시사를 읽어 보면 風流的인 입장에서 한 번쯤 음미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본고에서는 風流를 '속된 일을 떠나 흥취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야말로 절정에 달한 어부 생활의 풍류와 흥취를 노래한 작품으로써 우선 〈漁父四時詞春 5〉를 들 수 있다.

고온 볕티 쬐얀는더 믉결이 기름ᄀᆞ다
그물을 주어 두랴 낙시를 노흘 일가
濯纓歌의 흥이 나니 고기도 니즐노다
〈漁父四時詞 春5〉

초장에서 이미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배경에 깔아 놓았다. 밝은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잔잔한 물결이 기름처럼 고와 보인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것인가를 자신에게 묻는다. 그에 대한 답은 종장에 제시되어 있다. 곧, 탁영가에 흥이 나서 고기 잡는 일도 잊는다는 것이다. 그가 흥에 겨워 어부가를 부르게 된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 풍경에 흠뻑 젖어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의미로써 '물(水)'

(16) 신익호, 孤山時調의 特質, 崇田語文學 제2집 숭전대 국어국문학회, 1973.

은 풍류스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17]

마람닙희 ᄇᆞ람 나니 篷窓이 서늘코야
너롬 ᄇᆞ람 명ᄒᆞᆯ소나 가는대로 ᄇᆡ시겨라
北甫南江이 어듸 아니 됴흘리니
〈漁父四時詞 夏3〉

어부로 가장한 은자의 생활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고기잡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뱃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마치 소동파의 〈적벽부〉에 '蘇子與客 泛丹遊於 赤壁之下 淸風徐來 水波不興'이라고 한 장면을 연상시켜 주기도 한다. '마름잎' '여름 바람' '북포남강' 등 속세와는 거리가 먼 仙的인 境地를 배경으로 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산수 유람이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18]

그 외, '漁父四時詞 春2 ◦春3 ◦春4 ◦夏1' 등의 작품 역시, '물'의 心象은 즐겁게 놀 수 있고 뱃놀이의 흥을 돋구는 '風流의 條件'으로 작용한다.

(3) 漁父 生活의 現場感

孤山의 작품은 대다수의 李朝 시인들의 작품과 비교할 때, 風流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더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장점을 더러 발견하게 된다. 이는 山中新曲과 漁父四時詞에서 잘 나타나는데, 특히 물(水)을 소재로 작품 배경이 설정되어 있는 어부사시사 중에서 어부 생활의 현장감을 반영한 작품을 찾을 수 있다. 漁父四時詞 各 2편에서는 출어 준비의 묘사가 세세하게 드러

(17) 註(9)의 논문.
(18) 註(9)의 논문.

나는데 줄대를 손질하고 뱃밥을 박는 장면의 묘사에서 어부 생활과 밀착된 그의 창작활동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대 다스리고 뱃밥을 박알ᄂᆞ냐
瀟湘洞庭은 그 믈이 언다 ᄒᆞᆫ다.
이때예 漁釣ᄒᆞ기 이만ᄒᆞᆫ덕 업도다
〈漁父四時詞 冬2〉

윤성근 교수는 이 작품에 대해 '아름답기만한 자연'이라는 유람자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으나[19] 초장에서의 사실적인 출어 준비의 묘사와, 종장의 현재형의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孤山 자신의 경험으로 도출된 사실임이 자명해 진다.

그의 시가작품이 오늘에 와서 어느 시조 작가의 작품들보다도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는 까닭은, 사실성의 획득과 그로 인한 現場性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의 작품 하나하나가 지니는 매력도 결국, 평범한 언어의 효과적인 구사와, 정치한 묘사에 힘입은 바 크다.

여튼 갤고기들히 먼 소히 다 갇ᄂᆞ니
져근덧 날 됴흔 제 바탕의 나가 보쟈
밋기 곧다오면 굴근 고기 믄다 ᄒᆞᆫ다
〈漁父四時詞 冬3〉

이처럼 孤山이 그의 작품 속에 생동하는 現場感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甫吉島나 金鎖洞 그리고 海南典事의 생활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의 단절된 생활 가운데, 자연에 몰입하여 현장 관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체험이 그의 시가 작품에 寫實性과 現場性을 부여해 주었을 것이다.

(19) 註(4)의 책, p. 84.

그가 만일 실제의 체험을 갖지 못했다면, 겨울날 고기의 특성을 이처럼 섬세하게 그려내지 못했으리란 점은 자명한 일이다. 孤山은 당시 사대부의 사고 체계를 뛰어 넘어, 물(水) 위의 한적하기만한 隱遁生活에서 생동하는 現場感을 가려내고 그의 작품에 表出해 냈던 뛰어난 시인이다.

Ⅳ. 結　　言

이상에서 尹孤山의 文學에 나타난 '물(水)'의 心象을 살펴 보았는데 그 내용을 整理해 보면,

첫째, 孤山의 詩歌에서 물(水)은 儒教倫理를 표백하고 있다. 그는 典型的인 儒學者로서의 절개를 시종일관 간직한 선비였다.

둘째, 기나긴 流配生活 중 그는 좌절된 부조화 속에서 戀君·思親의 정을 유배지에 흐르는 물의 심상에 실어 노래하였다.

셋째, 또한 물(水)은 그의 시가에서 外亂과 黨爭으로 혼란해 졌을 뿐 아니라, 모함과 비방을 일삼는 당시의 世態를 諷刺하는 素材가 되기도 하였다.

넷째, 부용동에서 老年을 보내며 그는 漁父四時詞를 지었는데, 외란이 지나고 孝宗이 등극하여 비교적 안정된 심정으로 지어졌으므로 여기에 이르러서는 앞에서 세태를 풍자하여 부정적인 현실인식을 보이던 것이, '理想鄕으로서의 自然', '風流', '漁父生活의 現場感' 등 여유로운 자세로 나타나게 되어 否定的인 現實認識의 超克을 보여 준다.

孤山의 文學素材 중, 물(水)의 心象을 밝혀내는 작업은 특히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본고에서는 國文詩歌 75수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인지라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방대한 그의 漢詩까지를 망라하여 단지 文學素材 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에 뜻있는 분들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文永午, 〈孤山詩歌의 特徵〉 同德語文論集 제 5 집, 동덕여대 국어국문학회, 1987.

文永午, 〈詩歌文學에 投影된 自然〉 韓國文學硏究 제 3 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0.

文永午, 〈尹善道論〉 時調學 硏究叢書, 韓國時調學會, 日出출판사, 1986.

신익호, 〈孤山時調의 特質〉 崇田語文學 제 2 집, 숭전대 국어국문학회, 1973.

원용문, 〈尹善道 시조의 문학적 의미〉 배달말, 경상대 배달말학회 학회지 제 10 집, 1985.

윤성근, 〈윤선도 작품집〉 형설출판사, 1982.

李敏弘, 〈高山九曲家와 漁父四時詞의 對比的 考察〉 成大文學 제 20 집, 성대 국어국문학과, 1978.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新丘文化社, 1982.

崔珍源, 〈漁父四時詞와 假漁翁〉 成大論文集, 1960.